



북전주농협, 본점·호남문지점 새 동지로 이전

북전주농협이 조합원과 지역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점과 호남문지점을 새 청사로 이전하고 지난 8일 공식 개점했다. 이번에 이전한 북전주농협 본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06(반월동)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특히 기존 호남문지점 건물을 3층 규모로 증축해 공간 활용과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1층은 금융접점, 2층은 사무공간, 3층은 회의실과 문서고 등으로 구성해 조합원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전주농협은 새 본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신용·경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미래경영 리딩부서 우수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지난 8일 전남 나주시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사정립기념일 행사에서 미래경영 리딩부서 평가 우수부서 시상 표창을 받았다. 이번 미래경영 리딩부서 표창은 한국농어촌사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였으며, 주요 평가 선정기준은 △FUTURE KRC 프로젝트 우수사례 △대외협력 네트워크 운영성과 △미래전략 이행도 △기획·참여 실적 등 총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진행됐다. 무진장지사는 사회적 연대를 위한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활동과 지역 협력 기반의 사업 추진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문성군 에스엠 산업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문성군 에스엠 산업 대표가 지난 8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스엠 산업은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한 모터·펌프 제조기업으로, 자사만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중대형 수중모터펌프 생산을 전문으로 하며 차세대 리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성군 대표는 평소 남다른 애郷심으로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에 큰 관심을 갖고, 나눔과 상생의 경영 철학으로 지역사회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한영농조합법인, 윤봉읍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 윤봉읍 관계자는 관내 대표적인 나눔 기업인 영농조합법인 이한(대표 이재진)이 올해도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재진 대표는 매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금은 윤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 확대에 의미 있게 쓰일 계획이다. 이재진 대표는 기부뿐만 아니라 윤봉읍 소재지 권역 제철작업 봉사활동을 25년 넘게 지속해 온 지역 봉사활동의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연사들이 외치는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제42회 전국 웅변·스피치·시낭송·강사시연대회 성료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제42회 전국 웅변·스피치·시낭송 강사시연대회가 최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가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김양욱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 회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박선전·천서영 전주시의회 의원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체부 대상에 진석(전주)씨가 차지했다. 특상과 최우수상은 윤세춘(군산)씨와 김민정(나주)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오원석(군산)씨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김미지(전북대)씨는 전북대학교 총장상을 수상받았다. 웅변부 주요 입상자는 오이순·황금석·송현주·김평호·정동수·박다갑·김태선·이승애·김종현씨다.



스피치부는 송순자·정민경·정순임·최현식·김미정·산미자씨가 주요 입상자다. 시낭송부 주요 입상자로는 김귀녀·김영란·오동선·김평호·오이순씨 등이 있다.

강사부 주요입상자는 김연순·이경자·정정은·장미순씨이며, 학생부 주요 입상자는 장서희·안준서·곽지호·이서 학생 등이 있다.

유치부 주요입상자는 이하나·김규민·강민지·노정우 어린이다. 함께 진행된 주요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강정원씨가 이성운 국회의원 표창을, 이승애씨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오이순씨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전종일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을, 박다갑씨는 전주시장 표창을, 임선희씨는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최태희씨는 우수지도상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크리스마스 썰’ 모금 운동 동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의정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임환)로부터 ‘크리스마스 썰’을 증정받고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증정은 크리스마스 썰 모금 운동을 통해 결핵의 올바른 인식과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결핵협회 전북지부의 올해 모금 운동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1억770만원이다. 모금액은 결핵 또는 호흡기질환자의 발견과 진료, 예방·홍보·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현재 도내에는 2024년 기준 신규 608명 등 총 781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10만 명당 42명에 달하는 규모다. 문승우 의장은 “크리스마스 썰 모금은 작은 정성이 모여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도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결핵 예방과 복지 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임환 지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의 따뜻한 동참은 결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홍보·치료 지원 등을 통해 결핵환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썰’은 1시트(10매)에 3,000원이며, 그린 썰의 경우 1개에 5,000원이다. /오만호 기자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 무주군에 쌀 기탁

충청신문 김충현 대표(사장)가 9일 무주군에 쌀 100포대(1포대 10kg)를 기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사회복합공동모금회를 통해 6개 읍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군 실천만이 고향인 김충현 대표는 44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이웃돕기 성금과 쌀, △코로나 및 독감 예방용 마스크 기탁,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등 고향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명이 9일 무주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김장철 새우젓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마경옥 회장은 “주민들에게는 좋은 것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서 좋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 행복을 주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알림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출판기념회= 일시: 20일, 장소: 국립군산대학교 고촌군홀
▲장수군 전국시군공모전 수상작 및 장수지부 회원작품 전시회= 일시: 11~17일, 장소: 장수군민회관, 연락처: 010-9697-7839

폐질환 기침 원인 규명에 새로운 시각 제시

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

국제학술대회서 우수초록상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소리 교수가 국제학계에서 다시 한 번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8일 김 교수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학술대회(KATRIIC 2025)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호흡기·결핵 분야 연구자와 의료진이 대거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권위 있는 자리로 꼽힌다. 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기침을 동반한 폐쇄성 폐질환(OLD) 환자를 대상으로 상기도 구조 변화와 기능적 지표를 정밀 영상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난치성 만성 기침(Refractory Chronic Cough, RCC)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근위기도(상부 기도)의 리모델링 경향을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기침을 호소하는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목 부위 상기도와 기관의 지름이 상대적으로 넓어져 있으며, 왼쪽 아래 폐엽에서 폐기종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소 교환 능력도 일반 환자군보다 떨어져, 기침이 단순한 증상에 그치지 않고 상기도 구조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근위기도의 형태 변화가 만성 기



침의 중요한 병태생리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김 교수는 상기도 CT 기반 정량지표가 만성 기침 환자를 세분화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영상 바이오마커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성 기침 환자의 경우, 근위기도 확장과 기능적 변화 지표를

함께 분석하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기관 연구와 외부 검증 등을 통해 연구의 임상 적용성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도 “이번 수상은 전북대병원이 축적해온 정밀 영상·임상 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성과”라며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



부안 졸포면 지사협, 겨울철 따뜻한 사랑 나눔

부안군 졸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8일 동절기를 맞아 김장김치 나눔사업과 ‘사랑의 꾸러미 나눔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71세대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부안군 졸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랑의 꾸러미 나눔사업’은 쌀, 누룽지, 참치캔 등 다양한 식료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복지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는 특화사업으로 매년 연말에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고물가로 김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사업’도 함께 마련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하서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부안군 하서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고평심)에서는 지난 6~9일 하서면 고인돌 체련공원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에도 새마을부녀회 50여명이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 및 취약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전달했다. 하서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와 밀반찬 등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면 소재지 제초작업과 해양쓰레기 정화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서면 대표 봉사단체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데이웰·래미F&B,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농업회사법인 데이웰(주)과 래미F&B는 9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무주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각 5백만 원씩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득주 대표는 “지역인재를 키우는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꿈을 지지하며 무주군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데이웰(주)과 래미F&B는 지난 2020년부터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왔으며, 그 금액이 2천만 원에 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지사협 위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제강도 향상’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 맞춤형 복지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중심의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도태 기자